

다산포럼

염무웅



이번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과 해일, 그리고 이어진 원전사고는 단지 대규모의 재난이라는 점에서만 아니라 그것이 함축하는 다차원적 의미라는 면에서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특히 우리에게서 바로 이웃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 지진 해일이나 작년 아이티 지진에 비해 사망자가 더 적었음에도 훨씬 더 직접적인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지진 해일의 피해가 엄청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이다. 역사가 가르쳐 주듯이 자연이 행사하는 생산력과 파괴력의 위대함을 배우고 거기 복종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하지만 원자력에 관계된 일련의 사고는 이와 아주 다른 것이다. 폭탄을 만들기 위해 서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든, 원자핵의 인위적인 분열과 융합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인류문명의 절멸을 각오해야 하는 원천적 위험의 하나임이 현실 속에서 입증된 것이다.

원전 결사대, 그 빛과 그늘

그와 더불어 이번 원전사고의 대처과정에서 나타난 부수적인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기 시작하면서 3월 14일 800여명의 원전 직원들은 빠져나가고, 남은

50명만이 현장에서 원자로를 식히기 위한 작업에 투입되었다. '인디펜던트'는 그들이 "무거운 산소통을 둘러메고 침묵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플래시 불빛에 의지해서 작업을 했다"고 전한다. 그린피스의 반핵운동가 리아너 킬러는 그들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15분씩 교대작업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됐을 것이며 즉각 방사선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후 후쿠시마 원전에는 작업인원이 초기의 '결사대 50인'으로부터 180명, 580명

된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처자식 없는 계약직 직원들로서 불과 1만엔의 일당을 받은 사람들이다 한다. '한겨레' 신기섭 논설위원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1960년대 일본에 처음 원전이 등장한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위험한 업무를 주로 도맡아온 것은 '원전 집사'라 불리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였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유지에 관련된 이 가혹한 현실은 그러나 남의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앞으로 2024년까지 14기를 더 건설할 예정이다. 지금 강원도 삼척과 경북 울진·영덕은 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원자력유치협의회' 같은 기구가 만들어져 서로 자기네 고장으로 유지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지 취재에 나갔던 기자는 어느 할머니의 이런 말을 전한다. "보상받은 돈으로 편히 살다가 자식들한테 좀 물려주면 얼마나 좋나." 할머니는 평생 꿈꾸지 못했던 돈을 만질 기회를 잡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담보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할머니도 '원전결사대'가 아니고 무엇인가! 진정 무서운 것은 지진 해일에 의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자본주의 침탈구조에 의한 인간성 파괴임이 분명하다.

<문학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역기업 인력 못 구해 떠나는 일 없어야

전남지역 투자기업들이 인력을 못 구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전남을 찾는 기업들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필요한 인력을 제때 구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가 최근 전남에 투자한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은 당장 사무·생산관리직 245명, 생산직 328명 등 573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한 사람은 19개 기업, 213명에 불과해 충원율이 40%에도 못미친다.

이 같은 지역 투자기업의 인력난은 구직자들이 수도권 기업이 쳐우가 낮다고 생각해 지역기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서 갈수록 심화하는 교육, 주거 등 정주환경의 수도권과 지방 간 차이를 한 몫을 하고 있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 속에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라는 왜곡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다.

지방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지자체 힘

만으론 역부족이다. 물론 지자체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산학협동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으로 기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 놓으면 대부분이 사회·경제적 기반 환경이 좋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방기업 인력난-기업의 지방 투자지피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겨 결국 국토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 사회·산업기반 시설 확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대형 국책사업의 지방유치를 통해 지방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단순히 경제논리만 접근할 경우 지방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지방 투자기업이 인력을 못 구해 다시 떠나는 현상이 되풀이돼선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

활개치는 불법 결혼정보업체, 손 놓은 당국

구혼자를 알선해주는 결혼정보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가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에 소비자 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결혼정보업체의 계약내용 불이행과 환불 거부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사례 건수가 월 평균 3~4건에 이르고 있다.

업체의 상당수가 부실해 계약대로 만남을 주선하지 않고, 배우자 신상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내놓거나 비싼 소개료를 요구하는 등 온갖 수법으로 가입자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결혼정보업체는 모두 12개로, 회원 가입비는 최저 50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턱없이 비싼 편이다. 영세업체들의 경우 가입 회원에 대한 환불 규정 등이 제각각이다 보니 피해 형태도 천차만별이다.

가입금을 받은 후 1~2회만 주선을 하고, 이후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다"며 시간을 끄는 수법으로 계약기간을 넘기게 일쑤다. 또한 구혼 대상자를 재력가로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안고 있는 등 가입자의 요구 조건과 전혀 다른 이성을 소개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가입 시, 영수증은 물론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 발생 뒤 '나 몰라라'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결혼정보업체들이 이처럼 일탈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나 당국의 단속이나 관련법 개정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특히 결혼정보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규정하거나, 그에 따른 보상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제라도 당국이 나서서 업체들의 이런 그릇된 행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일정 기준의 업체 규모를 갖추고 피해자 보상을 마련한 회사만을 회원 모집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게 급선무다. 불법을 일삼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법당국이 수사 단속을 통해 철퇴를 가하는 것도 재발방지를 막는 길이다.

NGO 칼럼

박홍수



어김없이 2011년 새로운 봄기운을 맞이하게 되면서 따스한 햇살이 겨울 내내 꽁꽁 얼었던 몸 한구석을 녹여주는 듯하다. 세상의 빛과 희망이 시작되는 계절이 새로운 순환의 법칙으로 우리들의 곁에서 함께 하는 시점에서, 또 다른 곳에서는 수많은 대재앙과 피로 얼룩지는 세상이 함께 하고 있다.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전쟁과 환경문제에 대한 것

순환의 법칙을 통해 순응해야 한다. 문화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가장 가깝게 자리하고 있는 것들이다. 즉 회화(繪畵)와 음악(音樂)은 물론이고, 모든 문화와 예술은 결국 지역 환경적 요소가 가장 크게 작용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창조자의 위치에서 대자연을 지배하려는 수단을 만들지 보다는 대자연에 순응하고 역행하지 않아야 한다.

자연에 순응하는 문화 만들때

들이다. 이들 문제에 대해 모든 매스컴에서 관심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가슴을 답답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인간의 탐욕과 지배논리에서 벌어지는 일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인간들은 전쟁을 통해 문화를 말살하고, 지구환경을 변화시켜 왔다. 결국 일본과 같은 대재앙은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들은 자연환경과 서로 융합하면서 문화를 만들고 영위하고 있다. 또 그것들을 후세에 전하면서 교육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가는 순환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문화와 예술의 가치는 결국 지역 환경과 깊은 영향이 있으며, 그 축에는 우리라고 하는 인간들의 상호 존엄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배하려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그저

유럽 각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몇몇 시·군에 지정되어 있는 '슬로우 시티'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의미를 같이 한다. '느림의 미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환경을 지배하는 문화보다는 친환경적 문화를 엮어나가는 것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구성해나가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들을 지배하려는 무의미한 행동들을 하면서 창조적 문화와 예술이 환경변화에 의해 결국은 소멸해 버리는 결과를 초초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시아 문화중심의 도시를 구성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실행하고 있는 지금 과연 무엇을 통해서 문화의 중심 도시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기도 하다. <우리민족문화예술연구소 상임위원>

경찰·검찰 사칭 지능적인 스팸 철저히 차단해야

요즘 팝업이나 스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무차별 스팸과 팝업을 막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팝업과 스팸의 홍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교묘하게 들어오는 스팸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목포 00경찰서입니다' '00지방경찰청 00수사과입니다'라는 식의 제목으로 들어오는 스팸이다. 일반 시민들은 누구나 경찰서나 검찰에 관계된 일이라면 일단 걱정이 앞서게 된다. 그런 불안감을 악용해 경찰서나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스팸을 띄워 놓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일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혹시나가 역사나로 바뀔다. 내용은 성인 광고, 특정 책 소개, 종교적 내용,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비난하는 내용투성이다. 순간적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다. 아무리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런 편법을 쓴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스팸을 사용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법당국에서도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해 스팸 제목을 띄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찾아내 강력하게 제재해주시기 바란다. <박종삼·목포시 동명동>

기고

구제길



맑고 모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다면 무엇을 알고 모르다면 무엇을 모르겠습니까? 그보다는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묻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의 문제 속에 내가 있고 나의 문제 속에 내가 있음을 그리고 세계의 문제가 따로 있지 않음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읽은 책들에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

목소리였고 흔들릴 수 없는 소리는 세상을 향한 나눔의 소리였습니다. 나는 인생의 무대에 노을이 질 무렵 비로소 사람이 사는 길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가야 할 바쁜 길에 들어섰습니다. 서둘러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과 몰라도 좋을 것이 구분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이 갈라졌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것처럼 사랑할 것이며 존중받고 싶은 것처럼 존중할 것입니

아름다운 나눔의 미학

겨 있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엔 너무 많은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저도 입술을 꼭 깨물고 주먹을 쥐었지요. "나도 커서 어른이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세월이 흐르고 어른이 되면서 점차 어린 시절의 꿈은 사라지고 먹이를 찾아 편리를 찾아, 욕심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남에게 밝히지 않으려고 하니 밝은 위치로 자리를 잡으려고 속고 속으며 파란 늪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을 지혜라고 가르치는 선생도 많았습니까. 이용될 만한 사람만 만나서 우정이니, 사랑이니 하는 헛된 맹세를 하며 나아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편을 가르고 적을 미워하며 달변 삼키고 쓰면 뱀은 그런 세월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소리는 어머니의

다. 인간의 문제가 나 개인의 문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원칙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저에게조차 봉사생명으로 여기는 라이온스협회의 총재라는 중책이 힘겹게 느껴지는 이유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더불어 사는 향기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에 우리 모두가 힘을 더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이웃나라 일본의 지진으로 인한 재앙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가 배우고 나뉘어 할 진정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맑고 모름은 그 속이 내포되어 있는 진정한 가치를 이루어 갈 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39대 단장총재>

후불 하이패스카드 교체엔 미납여부 확인을

최근 경제성과 편리성으로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와 차종에 따라 20~50%까지 통행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여 이용시 통행료 5% 할인 등 카드사별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또, 신용카드와 현금서비스의 기능이 없어 도난, 분실, 파손에도 안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후불하이패스카드의 미납 발생 시 3회째부터 10배의 통행료가 부과되므로, 조금더 신중한 사용이 요구된다. 미납은 후불하이패스카드와 연계된 신용카드가 연체된 상태로 하이패스를 이용하였을 때, 연계된 신용카드를 교체할 때,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동시 교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였을 때 통행료 지불이 승인되지 않아 발생한다. 신용카드를 교체할 때 반드시 후불하이패스카드도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고객이 많아 자칫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한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다행히 후불하이패스 홈페이지(www.ex-card.co.kr)에서 미납내역조회 및 미납 통행료 납부도 가능하므로, 교체 후에는 반드시 통행료가 정상 지불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 <▲이헌자·한국도로공사 MHS서비스>

無等鼓

"내일은 나도 스타!" 최근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계에서 일고 있는 오디션 열풍이 심상치 않다. 바늘 구멍 뚫기지만 일단 관문을 통과하면 연예인으로 데뷔할 꿈에 오디션 참가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있다.

오디션은 라틴어로 '경청하다', '청력'을 뜻하는 '아우디레'(audi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진다. 초기에는 오페라 극장에서 가수를 채용할 때 장막을 가리고 심사위원의 청각에 의한 판단만으로 가수를 채용하는 것을 의미했다.

19세기 후반부터 오디션에 불거리가 추가됐다. 단순한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춤과 연기, 표정까지를 고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오디션 바람은 이전과는 판 판이다. 재능과 끼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비약스타가 된다. 한국의 오디션 바람은 수십 년 전 몇

절마다 열렸던 우리의 풍물대회를 연상케 한다. 비록 무대는 초라하고, 반주는 세련되지 않아 촌스러웠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싶으려는 마음은 지금의 오디션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인간 본능인 '자기

현시' 욕구의 분출로 오디션은 새로운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크게 높아졌다. 방송은 시청률을 높일 수 있고, 업계에서는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빛에는 그림자가 항상 따르는 법. 몸치마 오디션 출연을 부추기는 날림 기획사가 생겨나거나 하면, 스타의 꿈에 청춘이 쪼뼛거리고 한다. 숨어있는 끼는 마음껏 자랑해도 좋지만 혹시 모를 함정에 빠지면 곤란하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오디션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完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제111호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사회부 2200-616	조사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